

六腑下合穴의 導入 背景에 關한 研究

이봉효^{1*}, 임성철¹, 이경민¹, 김재수¹, 정태영²

¹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²진단학교실, ²제한동의학술원

A review study on the Yug Bu Ha Hap Hyul

Bong-Hyo Lee¹, Sung-Chul Lim¹, Kyung-Min Lee¹, Jae-Su Kim¹, Tae-Young Jung²

¹Dep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oint, ²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

²Je-Han Oriental Medical Academy

Abstract

Objectives : The lower sea points of the six bowels is one of the most useful acupuncture prescription in the treatment for diseases related with six organ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effects of each acupoint,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systemic review about the whole of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ower sea points of the six bowels and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induction of that.

Materials and Methods : 1. The authors performed systemic review about the lower sea points of the six bowels using related-literatures such as Neijing and Nanjing. 2. We investigated the background of the induction and the necessity through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Hop (合). We thought the clinical usefulness of that.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lower sea points of the six bowels had been made for the supplement of the sea point of the five transport points and it might be possible to substitute the sea point of the five transport points with the lower sea points of the six bowels owing to the clinical usefulness of the lower sea points of the six bowels.

Key words : Lower sea points of the six bowels, five transport points

1. 緒 論

上巨虛, 下巨虛, 足三里, 委中, 委陽, 陽陵泉으로 구성된 六腑下合穴은 鍼灸學의 最古典인 『靈樞·本輸篇』¹⁾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래 六腑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에 따라 침구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特定穴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靈樞』에서는 “榮俞治外經, 合治內腑”라고 하여 六腑의 病을 치료할 때에

는 合穴이 위주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六腑皆出于足三陽上合于手者也”라고 하여 六腑는 腹部에 있지만 足三陽經 上에 그 合穴이 속해 있다고 하였다²⁾. 이것은 일반적으로 五俞穴 즉, ‘井榮俞經合’의 合穴 외에 또 다른 合穴이 필요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六腑下合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³⁻¹²⁾ 모두가 구성 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을 증명하는 연구들이었을 뿐, 六腑下合穴이라는 特定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考察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특히 그 導入 背景과 意味에 대해 연구한 것은 아직까지

· 교신저자: 이봉효,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Tel. 053-770-2252,
E-mail : dlghdgy@freecchal.com

· 투고 : 2009/08/18 심사 : 2009/09/10 채택 : 2009/09/22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왜 따로 六腑下合穴이라는 것을 설정하였는가? 六腑下合穴과 五俞穴의 合穴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등의 의문을 가지고 下合穴 및 經脈의 발전과정에 대해 文獻을 考察하여 導入 배경에 대해 探究한 결과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六腑下合穴에 대한 概括

六腑下合穴은 六合穴이라고도 하며, 下合穴의 下는 下肢, 合은 會合의 의미로서 五俞穴에서의 合穴과 구별하기 위하여 下合穴이라 한다. 下合穴은 六腑가 足三陽經 膝下の 6개 穴에 각각 合하므로 “六腑下合穴”이라고 하며, 特定穴의 하나로서 六腑의 疾病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穴이다.

大腸, 小腸, 胃의 下合穴은 足陽明胃經에 있으며 三焦, 膀胱의 下合穴은 足太陽膀胱經에, 膽의 下合穴은 足少陽膽經에 그 下合穴이 위치해 있다.

<표 1> 六腑下合穴

六腑	下合穴	所屬 經脈
胃	足三里	
大腸	上巨虛	足陽明胃經
小腸	下巨虛	
膀胱	委中	足太陽膀胱經
三焦	委陽	
膽	陽陵泉	足少陽膽經

六腑下合穴에 관한 내용은 『靈樞·本輸篇』의 “六腑皆出于足之三陽, 上合於手者也”와 『靈樞·邪氣臟腑病形篇』의 “胃合于三里, 大

腸合入于巨虛上廉, 小腸合入于巨虛下廉, 三焦合入于委陽, 膀胱合入于委中央, 膽合入于陽陵泉.”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

2. 六腑下合穴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가치

1) 六腑下合穴과 五俞穴의 合穴 比較

먼저, 五俞穴 中の 合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는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고 하여 經氣의 運行에 대해 우물에서 점차로 成流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물의 흐름으로 설명하였는데, 四肢末端에서 肘膝關節에 분포되어 있는 다섯 개의 중요한 俞穴(井穴·榮穴·俞穴·經穴·合穴)을 이에 비유하여 五俞穴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合穴은 수많은 河川이 바다로 流入되는 것에 비유되어 經脈의 氣血 流注가 더욱 왕성해져서 合穴에 合流하여 脈氣가 充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대개 肘關節과 膝關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素問·咳論』에서는 “治腑者, 治其合”이라고 했는데 역대 의가들은 合의 의미를 下合穴 또는 五俞穴의 合穴로 서로 다른 해석을 하였다¹³⁻¹⁵⁾. 또,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 “黃帝曰, 榮俞與合, 各有名乎? 岐伯曰, 榮俞治外經, 合治內府, 黃帝曰, 治內腑奈何? 岐伯曰, 取之於合, 黃帝曰, 合各有名乎? 岐伯答曰, 胃合于三里, 大腸合入于巨虛上廉, 小腸合入于巨虛下廉, 三焦合入于委陽, 膀胱合入于委中央, 膽合入於陽陵泉.”이라고 하였는데

“榮俞與合”이라는 문장을 보면 榮俞와 合이 같이 쓰인 것을 보아 五俞穴의 合이라고 생각되나 岐伯의 答을 보면 여기에서의 合은 下合穴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合穴과 下合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즉, 合이라는 단어만으로는 五俞穴의 合穴인지 下合穴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難經·68難』에서는 “合主逆氣而泄”¹⁶⁾라고 했고,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서는 “..... 經滿而血者, 病在胃, 及以飲食不節得病者, 取之於合”¹⁾라고 하였으며, 『靈樞·四時氣篇』에서는 “邪在腑取之合”¹⁾라고 하였다. 이것은 五俞穴의 合穴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 “大腸病者, 腸中切痛而鳴濯濯, 冬日重感於寒, 卽泄當臍而痛, 不能久立, 與胃同候, 取巨虛上廉. 胃病者, 腹臍脹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脇, 膈咽不通, 食飲不下, 取之三里也. 小腸病者, 小腹痛, 腰脊控牽而痛, 時窘之後當耳前熱. 若寒甚, 若獨肩熱甚, 及手小指次指之間熱, 若脈陷者, 此其候也. 手太陽病也, 取之巨虛下廉.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溢則水留, 卽爲脹, 候在足太陽之外大絡, 大絡在太陽少陽之間, 亦見於脈, 取委陽. 膀胱病者, 小腹偏腫而痛, 以手按之, 則欲小便而不得, 肩熱, 若脈陷, 及足小指外廉及脛踝後皆熱, 若脈陷, 取委中央. 膽病者, 善太息, 口苦, 嘔宿汁, 心下澹澹, 恐人將捕之, 噎中訇訇然, 數唾, 在足少陽之本末, 亦視其脈之陷下者, 灸之, 其寒熱者, 取陽陵泉.”¹⁾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下合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상의 각 篇에 기재된 문장을 살펴보면

五俞穴의 合穴인지 六腑下合穴인지 구분이 되는 것도 있고 구분이 안되는 것도 있으나, 모두 腑를 치료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五俞穴의 合穴과 六腑下合穴은 모두 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古代에는 五俞穴의 合穴과 下合穴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手太陰肺經의 合穴은 尺澤이고, 手陽明大腸經의 合穴은 曲池와 巨虛上廉, 足陽明胃經의 合穴은 三里, 足太陰脾經의 合穴은 陰陵泉, 手少陰心經의 合穴은 少海, 手太陽小腸經의 合穴은 小海와 巨虛下廉, 足太陽膀胱經의 合穴은 委中, 足少陰腎經의 合穴은 陰谷, 手厥陰心包經의 合穴은 曲澤, 手少陽三焦經의 合穴은 天井과 委陽, 足少陽膽經의 合穴은 陽陵泉, 足厥陰肝經의 合穴은 曲泉이다.

여기에서 手三陰經, 足三陰經, 足三陽經에는 合穴이 하나씩인데 유독 手三陽經에만 두 개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먼저 後代에 지어진 『鍼灸大成』과 『醫學入門』을 통하여 十二經脈의 五俞穴 合穴과 手三陽經의 下合穴의 主治를 비교하여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2) 十二經脈의 五俞穴의 合穴과 手三陽經의 下合穴의 主治 比較

표2를 요약해 보면 手三陽經의 合穴은 대체로 本經이 循行하는 경로상에 나타난 疾病을 치료하는 기능이 크고, 腑病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 그러나 手三陰經, 足三陽經, 足三陰經의 合穴은 手三陽經의 合穴과 같은 기능은 물론이고, 그 해당하는 臟腑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치료효

과를 나타낸다.

에 대해 主治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래

<표 2> 五俞穴의 合穴과 手三陽經의 下合穴의 主治^{17,18)}

手三陰經의 合穴	手太陰肺經 (尺澤)	『大成』 肩臂痛, 汗出中風, 小便數, 善嚏, 悲哭, 寒熱, 風痺, 臑肘攣, 手臂不舉, 喉痺, 上氣嘔吐, 口乾, 咳嗽唾濁, 痰癢, 四肢腹腫, 心痛, 臂寒, 短氣, 肺膨脹, 心煩悶, 少氣, 勞熱, 喘滿, 腰脊強痛, 小兒慢驚風
	手少陰心經 (少海)	『入門』 喉痺舌乾, 脇痛, 腹脹喘氣, 嘔泄不止, 癩病身痛, 四肢暴腫, 手臂肘痛 『大成』 寒熱齒齲痛, 目眩發狂, 嘔吐涎沫, 項不得回顧, 肘攣腋脇下痛, 四肢不得舉, 齒寒腦風頭痛, 氣逆噁噦, 瘰癧, 心疼, 手顫健忘
	手厥陰心包經 (曲澤)	『入門』 頭痛, 目黃, 目眩, 項強, 齒痛, 嘔吐, 肩背肘腋脇引項痛, 癩癩吐舌, 瘡疾寒熱汗出, 四肢不舉 『大成』 心痛, 善驚, 身熱, 煩渴口乾, 逆氣嘔涎血, 心下澹澹, 風疹, 臂肘手腕不時動搖, 頭漬汗出不過肩, 傷寒, 逆氣嘔吐
手三陽經의 合穴	手陽明大腸經 (曲池)	『大成』 繞踝風, 手臂紅腫, 肘中痛, 偏風半身不遂, 惡風邪氣, 泣出喜忘, 風癢疹, 喉痺不能言, 胸中煩滿, 臂膊疼痛, 筋緩捉物不得, 挽弓不開, 屈伸難, 風痺, 肘細無力, 傷寒餘熱不盡, 皮膚乾燥, 瘰癧癩疾, 舉體痛癢如蟲嚙 『入門』 頭痛喉痺, 肘臂痠痛不舉, 半身不遂, 筋緩難以屈伸, 腋痛, 肩痛, 皮燥癢疹及瘰癧癩疾, 寒熱作渴, 胸滿, 傷寒餘熱不淨
	手太陽小腸經 (小海)	『大成』 頸頷痛, 肩膈痛, 肘臂外後廉痛, 寒熱齒齲腫, 風眩頸項痛, 瘍腫振寒, 肘腋痛腫, 小腹痛, 痛發羊鳴, 戾頸, 瘰癧狂走, 頷腫不可回顧, 肩似拔, 臑似折, 耳聾, 目黃, 頰腫. 『入門』 頭痛項強, 齲齒齲腫, 癩症吐舌瘰癧, 癩狂肘腋腫瘍腫, 小腹痛瘡癩風瘡.
	手少陽三焦經 (天井)	『大成』 心胸痛, 咳嗽上氣, 短氣不得語, 唾膿, 不嗜息, 寒熱淒淒不得臥, 驚悸瘰癧, 癩疾, 五癩, 風痺, 耳聾吸唾, 喉痺汗出, 目銳皆痛, 頰腫痛, 耳後臑臂肘痛, 捉物不得, 嗜臥, 撲傷腰髖疼, 振寒頸項痛, 大風默默不知所痛, 悲傷不樂, 脚氣上攻 『入門』 大風默默不知所痛, 瘡食時發, 心痛驚悸癩癩吐舌羊鳴, 戾頸肩痛瘰癧麻木, 咳嗽唾膿
足三陰經의 合穴	足太陰脾經 (陰陵泉)	『大成』 腹中寒, 不嗜食, 脇下滿, 水脹, 腹堅, 喘逆不得臥, 腰痛不可俯仰, 霍亂, 疝瘕, 遺精, 尿失禁不自知, 小便不利, 氣淋寒熱不解, 陰痛, 胸中熱, 暴泄, 殮泄. 『入門』 心下滿寒中腹脹脇滿腹中水氣喘逆, 霍亂暴泄, 足痛腰痛小腹堅急, 小便不利, 遺尿失禁氣淋婦人疝瘕證.
	足少陰腎經 (陰谷)	『大成』 膝痛如錐, 不得屈身, 舌縱涎下, 煩逆, 尿難, 小便急引, 陰痿, 股內廉痛, 婦人漏下不止, 腹脹滿不得息, 小便黃, 男子如蠱, 女子如娠 『入門』 舌下腫, 膝痛如錐, 股內廉痛陰痿, 婦人漏下, 心腹脹滿不得息, 小便黃.
	足厥陰肝經 (曲泉)	『大成』 腰尻引小腹痛, 小便難, 遺溺, 婦人月水不調. 『入門』 潰疔, 陰股痛, 脇滿, 小便難, 癰閉, 少氣泄利, 四肢不舉, 身熱目眩汗不出, 膝痛筋攣, 發狂衄血, 喘呼咽痛, 頭風失精, 下痢膿血, 陰腫, 婦人血瘦按之如湯浸股內, 小腹腫陰挺出.

에서는 經脈流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六腑下合穴 중에서 足三陽經의 下合穴은 그 經脈의 五俞穴의 合穴인 동시에 직접 腑의 氣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手三陽經의 下合穴은 그 經脈의 五俞穴의 合穴과는 다른 穴로서 각 腑의 氣를 조절한다. 여기에서 下合穴은 五俞穴의 合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五俞穴의 合穴과 手三陽經의 下合穴

3) 經脈의 發展過程과 流注를 통해 살펴본 六腑下合穴의 導入 背景

『靈樞·本輸篇』에서는 “六腑皆出足之三陽, 上合於手者也”¹⁾라고 하였다. 手三陽經의 本腑의 經氣는 일반적으로 頭, 面 등을 行하고

足三陽經의 合穴	足陽明胃經 (足三里)	『大成』胃中寒, 心腹脹滿, 腸鳴, 臍氣虛憊, 眞氣不足, 腹痛食不下, 大便不通, 心悶不已, 卒心痛, 腹有逆氣上攻, 腰痛不得俯仰, 小腸氣, 水氣蠱毒, 鬼擊痲痺, 四肢滿, 膝胣痲痛, 目不明, 產婦眩暈 『入門』頭目暈眩, 口苦口噤鼓頰口高, 喉痛, 嘔吐, 狂言狂笑, 咳嗽多唾, 乳腫, 乳癰, 或中消善饑, 霍亂痲痺, 脇脹腹脹腸鳴, 胸腹中瘀血, 水腫痞痢, 泄瀉身熱 肚熱惡寒, 肘痛心痛, 腹痛腰痛, 足膝痿足熱, 小腹堅滿, 小便不利, 食氣蠱毒五勞羸瘦, 七傷虛乏.
	足太陽膀胱經 (委中)	『大成』膝痛, 痛及拇指, 腰俠脊沈沈然, 遺溺, 腰重不能舉, 小腹堅滿體風痺, 髀樞痛, 可出血, 痲疹皆愈, 傷寒四肢熱, 熱病汗不出, 取其經血立愈 『入門』小腹熱而偏痛, 尿赤難, 衄血不止, 腰痛俠脊至頭皆痛, 痿痛脇下腫痛, 脚弱膝痺, 腰股重不能舉, 半身不遂, 熱病汗不出, 足熱厥逆, 陰跳遺小便難, 小腹堅痛引陰中, 淋瀝腰痛脊強, 瘰癧痲疾, 頭痛筋急, 腋腫胸滿膨脹, 身熱飛尸遁注, 痿厥不仁
	足少陽膽經 (陽陵泉)	『大成』膝伸不得屈, 髀樞膝骨冷痺, 脚氣, 膝股內外廉不仁, 偏風半身不遂, 脚冷無血色, 苦噎中介然, 頭面腫, 足筋攣 『入門』膝伸不屈, 冷痺偏風半身不遂, 脚冷無血色, 頭痛寒熱, 口苦咽不利, 頭面腫, 脇肋滿, 心中恐如人補
手三陽經의 下合穴	手陽明大腸經 (巨虛上廉)	『大成』臍氣不足, 偏風脚氣, 腰腿手足不仁, 脚脛痲痛屈伸難, 不能久立, 風水膝腫, 骨髓冷疼, 大腸冷, 食不化, 飧泄, 勞瘵, 夾臍腹兩脇痛, 腸中切痛, 雷鳴, 氣上衝胸, 喘息不能行, 不能久立, 傷寒胃中熱 『入門』臍氣不足, 脇滿臍腹痛, 飧泄食不化, 偏風腰腿手足不仁, 小便亂.
	手太陽小腸經 (巨虛下廉)	『大成』小腸氣不足, 面無顏色, 偏風腿痿, 足不履地, 熱風冷痺不遂, 風濕痺, 喉痺, 脚氣不足, 沈重, 脣乾, 涎出不覺, 不得汗出, 毛際焦, 肉脫, 傷寒胃中熱, 不嗜食, 舌膿血, 胸脇小腹控牽而痛, 時窘之後, 當耳前熱. 若寒甚, 若獨肩熱甚及小指次指間熱痛, 暴驚狂, 言語非常, 女子乳癰, 足跗不遂, 腿痛. 『入門』髮枯脣乾, 口中流涎, 次指間痛胃熱不食, 泄膿血, 胸脇小腹痛, 乳癰, 暴驚狂, 小便難, 寒濕下注, 足脛跗痛肉脫.
	手少陽三焦經 (委陽)	『大成』腋下腫痛, 胸滿膨脹, 筋急身熱, 飛尸遁注, 痿厥不仁, 小便淋瀝. 『入門』陰跳遺小便難, 小腹堅痛引陰中, 淋瀝腰痛脊強, 瘰癧痲疾, 頭痛筋急, 腋腫胸滿膨脹, 身熱飛尸遁注, 痿厥不仁.

직접 腑는 循行하지 않으므로 小腸, 大腸, 三焦의 經氣는 足三陽에 相應하는 合穴處 (下合穴)로부터 별도로 內部로 들어간 후에 手부의 經脈과 合한다. 그런데 『靈樞·經脈篇』의 經脈流注를 살펴보면 “大腸手陽明之脈, 起於次指之端, … 絡肺, 下隔, 屬大腸, …”¹⁾ “小腸手太陽之脈, 起於小指之端, … 絡心, 循咽, 下隔, 抵胃, 屬小腸, …”¹⁾ “三焦手少陽之脈, 起於小指次指之端, … 散絡心包, 下隔, 循屬三焦, …”¹⁾라고 하여 手三陽經도 역시 臟腑와의 屬絡관계로써 해당하는 各腑와 직접적으로 연락되어 있다. 따라서 經脈流注 上으로 보면 手三陽經의 六腑下合穴을 따로 둘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經脈流注가 제시된 『靈樞·經脈篇』과 五俞穴 및 下合穴 이론이 소개된 『靈樞·本輸篇』 사이의 저작 연대를 비교해 본 결과 첫째로, 『靈樞·經脈篇』의 經脈流注와 『靈樞·本輸篇』의 五俞穴 이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靈樞·經脈篇』에서는 手三陰經은 從胸走手하고 手三陽經은 從手走頭, 足三陽經은 從頭走足, 足三陰經은 從足走腹한다고 하였고, 『靈樞·本輸篇』의 五俞穴 이론은 四肢末端에 있는 井穴로부터 經氣가 일어나서 榮, 俞, 經을 거쳐 肘膝關節의 合穴에 入한다고 하여 그 流注 上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

데 五俞穴 理論은 1973년 湖南 長沙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帛書 18종 가운데 『足臂十一脈灸經』의 向心性 理論¹⁹⁾과 일치한다. 즉, 『靈樞·本輸篇』의 五俞穴 理論이 『足臂十一脈灸經』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靈樞·經脈篇』의 유주 방향은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²⁰⁾ 을 기초로 하여 이후의 많은 의학 이론과 경험이 增補되어 改編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足臂十一脈灸經』의 十一經脈은 모두 向心性이고, 『陰陽十一脈灸經』에서 9條는 向心性이고, 나머지 2條는 離心性(經脈이 흐르는 방향이 心臟에서 멀어지는 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저작 시기에 있어서 『靈樞·本輸篇』이 『靈樞·經脈篇』보다 먼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十二經脈이 발전된 과정을 살펴보면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靈樞·本輸篇』에서 기술한 經脈은 11개로서 『靈樞·經脈篇』과 비교해 볼 때 手厥陰經이 빠져 있다. 『靈樞·本輸篇』에서 “心出於中衝, 中衝手中指之端也. 爲井木”¹⁾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心은 心包인 것이다. 즉, 文字上으로 보면 『靈樞·本輸篇』에서는 手厥陰經의 이름만 빠진 것이지 그 실체는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靈樞·本輸篇』에 나와 있는 心經의 五俞穴이 지금의 心包經의 五俞穴이라는 의미가 된다. 『靈樞·經脈篇』에서는 앞에서 말한 “心出於中衝”의 “心”이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고, 手少陰心經이 추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手厥陰이라는 經脈名의 출현은 나머지 十一經脈名보다 늦으

며, 手少陰經의 起止循行路線이 나타난 것도 나머지 十一經脈에 비해 늦은 것이다. 즉, 『靈樞·本輸篇』이 『靈樞·經脈篇』에 비해 일찍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셋째로, 經脈이 『靈樞·經脈篇』에 나타난 것처럼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經脈流注라는 관점보다는 傾向性을 나타내는 노선(우리가 생각하는 經脈流注가 아니며 일정하고도 특정한 변화를 나타내는 노선들)으로만 이해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는 臟腑配屬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經脈을 流注의 관점에서 볼 수 없었던 당시의 의가들은 끊임없는 치료과정 중에서 그 노선에는 관련된 나름대로의 疾病症候群이 있음을 알아냈을 것으로 사료된다. 『靈樞·本輸篇』을 보면 일정한 傾向性을 나타내는 노선에 비로소 臟腑가 配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靈樞·經脈篇』에 완전히 五臟六腑가 配屬된 經脈流注를 볼 수가 있다. 즉, 『靈樞·本輸篇』이 더 구체화되어 확립된 것이 『靈樞·經脈篇』인 것이다. 따라서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이 더 구체화된 것이 『靈樞·本輸篇』이고, 『靈樞·經脈篇』에 이르러 비로소 經脈과 五臟六腑가 완전히 配屬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위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六腑下合穴은 十二經脈이 如環無端하는 流注 이론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초기의 소박한 經脈流注體系를 가진 선인들은 이것을 점점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反應點(穴)을 찾기도 하고 疾病의 症候群이

인체에 특정한 傾向性을 나타내고 있다는 概念으로 臟腑配屬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史料된다. 이러한 가운데 手二陰經과 足六經은 四肢의 末端에서 軀幹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여 쉽게 臟腑配屬이 가능하였으나 手三陽經은 손끝에서 머리로 흐르므로 쉽게 臟腑配屬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史料된다.

여기에서 手三陽經의 臟腑配屬을 위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特定穴을 도입하여 이것을 合穴(下合穴)이라고 命名하였을 것으로 史料된다.

이상으로 下合穴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렇다면 合穴을 보충하기 위한 特定穴로 下合穴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穴이 각 腑에 配屬되는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六腑下合穴의 配置에 대한 견해

六腑에 관해서 기술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素問·五藏別論』에서는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此五者天氣之所生也。其氣象天，故瀉而不藏。此受五臟濁氣，名曰傳化之腑 此不能久留，輸瀉者也。”¹⁵⁾ “六腑者，傳化物而不藏，故實而不能滿也，所以然者，水穀入口即胃實而腸虛，食下即腸實而胃虛，故曰實而不滿，滿而不實也”¹⁵⁾라고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倉廩之本，營之居也。名曰器。能化糟粕，轉味而入出者也。”¹⁵⁾라고 하였다. 즉, 六腑에는 “瀉而不藏，以通爲用，以下行爲順”하는 특성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胃, 大腸, 小腸은 모두 水穀의 受納, 腐熟, 糟粕排泄의 역할을 한다. 『靈樞

·本輸篇』에서는 “膝下三寸，胫骨外三里也，爲合。復下三里三寸，爲巨虛上廉，復下上廉三寸，爲巨虛下廉也。大腸屬上，小腸屬下，足陽明胃脈也。大腸小腸，皆屬於胃，是足陽明也。”¹⁾라고 했고,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大腸病者，腸中切痛而鳴濯濯，冬日重感於寒，即泄當臍而痛，不能久立，與胃同候，取巨虛上廉。胃病者，腹臞脹胃脘當心而痛，上肢兩脇，膈咽不通，食飲不下，取之三里也。小腸病者，小腹痛，腰脊控牽而痛，時窘之後當耳前熱。若寒甚，若獨肩上熱甚，及手小指次指之間熱，若脈陷者，此其候也。手太陽病也。取之巨虛下廉。”¹⁾라고 하여 上巨虛, 下巨虛, 足三里가 모두 足陽明胃經에 있어 같은 消化器系統으로서 六腑의 傳導機能을 돕는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腸, 小腸, 胃의 下合穴이 胃經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史料된다.

三焦의 경우에는 『素問·靈蘭秘典論』에서 “三焦者，決瀆之官，水道出焉”¹⁵⁾라고 하였고,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焉”¹⁵⁾라고 하여 三焦와 膀胱이 水液代謝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였다.

『靈樞·本輸篇』에서는 “三焦下輸在於足大趾之前，²¹⁾ 少陽之後，出於臍中外廉，名曰委陽，足太陽絡也”¹⁾라고 하였고, 『甲乙經』에서는 “委陽三焦下輔輸也。在足太陽之前，少陽之後，出于臍中外廉，兩筋之間，承扶下六寸，此足太陽之別絡也”²²⁾라고 하여 三焦의 下合穴이 膀胱經에 있음을 말하였다. 『靈樞·本輸篇』에서는 “三焦者，足少陽太陰之所將太陽之別，¹⁾ 上踝五寸，別入貫膈腸，出於委陽，並太陽之正，入絡膀胱，約下焦，實則閉癢，虛則

遺溺 遺溺則補之, 閉癢則瀉之.”¹⁾라고 하였고, 또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溢則水留, 卽爲脹, 候在足太陽之外太絡, 大絡在太陽少陽之間, 亦見於脈, 取委陽”¹⁾라고 하여 生理的인 측면과 증상에 따른 치료면에서 三焦와 膀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말하였다. 따라서 이로부터 三焦와 膀胱의 下合穴이 膀胱經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六腑下合穴 중 手三陽經에 있어서는 五俞穴의 合穴이 직접 腑에 작용하는 기능이 적으므로 별도의 合穴을 生理機能上 관련된 經脈에 두어 手三陽經의 五俞穴의 合穴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結 論

저자는 六腑下合穴의 導入 背景과 意味에 대해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內經』과 『難經』이 지어진 時代에는 合과 下合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下合이라는 개념은 合의 의미를 보충하고자 생겨난 것으로서 불완전한 經脈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별도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下合穴 역시 腑의 氣를 조절함으로써 五俞穴의 合穴과 관련된 기능을 발휘하므로 五俞穴을 이용하는 여러 鍼法에 있어서 合穴 대신 下合穴을 응용하는 것

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解釋. 서울 : 一中社. 1991 : 11, 16-31, 53-5, 108, 117, 128, 337-8.
2. 대한침구학회교재편찬위원회. 鍼灸學(中). 파주 : 집문당. 2008 : 133.
3. 오달석, 최준용, 정소영, 신미숙, 김애란, 강경원, 김종인, 최선미. 위장 비율동성 당뇨병환자에서 족삼리(足三里)(ST36) 전침처치의 위전도 조절 영향 사례군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8 ; 25(4) : 95-103.
4. 박기홍, 이현. 족삼리(足三里) 홍화약침(紅花藥鍼)처치가 Collagen으로 유발한 생쥐의 관절염 모델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7 ; 24(6) : 45-61.
5. 이준성, 임윤경, 김영일. 족삼리(足三里) 전침(電鍼)이 흰쥐의 노화(老化)에 미치는 영향(影響). 대한침구학회지. 2007 ; 24(3) : 145-61.
6. 김용정, 박상무, 차숙, 윤정안, 유윤조, 강병기, 김강산. 족삼리(足三里) 전침의 주파수, 강도 및 자극 시간이 소장 수송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6 ; 23(4) : 175-85.
7. 송왕기, 강재희, 이현. 양릉천 갈근 약침이 흰쥐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9 ; 26(4) : 79-90.
8. 조은희, 박민철, 김대중, 이호섭, 조남근, 주영승, 육태한, 유윤조. 족삼리(足三里), 상거허(上巨虛), 하거허(下巨虛)의 배혈

- (配穴)에 따른 전침의 실험적 연구. 대한 침구학회지. 2006 ; 23(5) : 79-92.
9. 김동용, 이상용, 이창현. 천추 (天樞) 및 상거허의 (上巨虛) 침자극이 대장 통과 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2) : 311-8.
 10. 이은경, 최은희, 전주현, 김영일. 하거허 유침 및 고주파 전침이 흰쥐의 장운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9 ; 26(2) : 79-89.
 11. 이상훈, 정병식, 윤형석, 조성규, 이윤호, 김성욱. 위중혈 자락의 요통에 대한 치료 효과.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1) : 65-75.
 12. 윤성수, 이병렬, 성낙기. 위중혈 (委中穴) (B40) 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 침구학회지. 1990 ; 7(1) : 263-76.
 13. 張志聰. 新編素問集註. 서울 : 大星文化社. 1991 : 308.
 14. 馬蒔.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 大星文化社. 1991 : 245.
 15.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68, 78, 88, 241.
 16. 凌輝星. 難經校注. 서울 : 一中社. 1994 : 119.
 17. 李梴. 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91 : 261-9, 272-3, 275, 283, 287, 289, 292, 301.
 1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 一中社. 1991 : 717, 736-7, 768, 792, 805, 817, 850, 872, 885, 897, 924, 943, 772-3, 849.
 19.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 12.
 20. 周一謀. 馬王堆醫學文化. 上海 : 文匯出版社. 1994 : 283-8.
 2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 大星文化社. 1991 : 171.
 22.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79 : 486.